

옛집 연구 통해 복원한 민중생활사

「韓國의 民家」 펴낸 김홍식교수

아파트와 국적불명의 양옥에 밀려 점차 사라져 가는 전통 민가의 참모습을 온전히 복원함으로써 민중건축의 역사적 운동성을 새롭게 밝혀낸 「韓國의 民家」 전2권이 최근 金鴻植교수(46. 명지대 건축과)에 의해 한길사에서 상재됐다.

2백자 원고지 5천장 분량에 1천3백여장의 사진자료, 4백여매의 도표를 국배판 8백40쪽에 담고 있는 이 책은 그 엄청난 작업의 양도 양이지만, 이제껏 미답지로 남겨져 있던 이 방면 연구의 거의 첫삽을 뜨는 작업이자 그 완결판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주목을 끄는데, 아마도 당분간은 우리 전통건축 연구의 가장 빼어난 原典이요 正本으로 그 생명력을 이어갈 명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책은, 집이란 곧 사람의 삶을 담은 공간이라는 생각에서 집 자체의 물리적 측면에만 주목하던 종래 연구자들의 태도를 지양하고, 말 그대로의 건축 '문화' 연구를 통한 민중생활사의 복원이 시도되고 있어 더욱 주목에 값하는 작업으로 평가된다.

“지금까지 민가를 연구하던 사람들은 대체로 생활을 사상해버리고 물적인 민가만을 대상으로 하든가, 아니면 전통적 민가 상대적으로 수명이 짧다고 생각하여 정태적 민가에만 매달림으로써 역동적으로 변천해 가는 민중적 삶의 운동성을 읽어내지 못했다”고 비판하는 김교수는 “유형적 삶의 흔적이랄 수 있는 전통 민가의 연구를 통해 지나온 시간상의 보이지 않는 민중의 생활상을 복원해 보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 책에서 여실히 증명해 보이고 있다.

전통민가에 나타난 삶의 유형적 흔적

김홍식교수가 민가 연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이미 흥희대 건축과 재학시절부터. 1967년 가을, 졸업작품으로 농촌주택 설계를 계획하고 이스라엘의 키브츠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며 “민중의 생활사를 이해하는 지름길로서 민중의 삶을 담은 민가를 연구하여 다가올 새로운 민중시대의 민족건축을 계획하겠다는 소박한 소망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덤벼들었다.” 그러나 “의장적으로 공부할 것이 별로 없는 별볼일 없는 건축이 민가” “차라리 양반주택을 공부하지, 하필이면 민가를” 하는 식의 당시의 학문적 편견 탓에 결국 계획이 취소되고 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민가에 대한 그의

관심이 지속될 수 있었던 데는 지난해 작고한 부친 김한섭씨(전 중앙대 교수)의 격려와 성원이 큰 힘이 되어 주었다. 광주 무등경기장을 설계한 건축가였던 부친 김한섭씨는 “당시까지만 해도 일견 가치없게 보던 민가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신적 지주 노릇을 해주셨다”는 것이 그의 말이다.

“그러다가 1971년 문화재관리국의 전국 민속조사에 참여해 제주도지역의 민가들을 답사하게 되는 것을 계기로 민가 연구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됐습니다. 당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제주도의 민속현장을 답사하면서 현장조사의 방법론을 배웠습니다. 조사단이 떠난 뒤에도 혼자 제주도에 두달 이상 머물며 제주도 전역의 모든 마을을 돌아다녔죠. 그때 제가 속으로 맹세한 것이 있는데, 제주도 뿐 아니라 우리 나라 전역의 모든 마을을 답사해보자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김교수의 민가 연구는 이번의 「韓國의 민가」로 한 매듭을 보기까지 20여년간을 간단없이 이어져온다. 그동안 전국 각지의 마을을 답사하여 실측한 집만도 모두 2천여채에 이르러 이제는, 전문적인 산악인들이 등고선만 보고도 산의 형세를 짐작할 수 있듯, 주춧돌 하나에서도 집 전체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 꾸불꾸불 휘어져 돌아가는 고살길에서는 그 위를 밟고 지나간 옛사람들의 발자국을 발견한다.

“작업의 특성상 빼어난 경승지를 자주 찾게 되는데, 한번도 그 경승을 제대로 감상치 못했습니다. 설악산에 가더라도 설악산은 못보고 설악산 속의 집만 보고 오죠. 요즘은 덜하지만 현장조사를 막 시작하던 초창기 때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 몇날며칠을 말 한마디 못한 채 보낸 적도 많은데, 그럴 때면 조사가 끝난 다음 읍내 다방 같은 곳에 앉아 여러 잔의 커피를 죽 시켜놓고 여종업원들과 ‘허튼 소리’도 해가며 사람과 더불어 말하는 즐거움을 되찾곤 했습니다.”

단순한 건축물 아닌 구체적 생활공간

오랜 세월을 걸친 김교수의 각고의 노력이 집결해 있는, ‘발로 만든’ 책 「韓國의 민가」는 크게 일곱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제1부 ‘韓國의 민가를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는 일종의 총론격으로 민가의 연구과제와 선행 연구사, 연구방법론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있

“지금까지 민가를 연구하던 사람들은 대체로 생활을 사상해버리고 물적인 민가만을 대상으로 삼는 바람에 역동적으로 변천해 가는 민중적 삶의 운동성을 읽어내지 못했다”고 비판하는 김교수는 “전통민가의 연구를 통해 민중생활사의 복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 책에서 여실히 보여준다.



김홍식교수.

는데, “무엇보다도 민가를 연구하는 목적은 민가에 삶을 담았던 민중건축의 역사적 운동성을 밝히고 현재를 이해하며, 민중에게 복속하는 예술형식을 창안하고 나아가 앞으로의 주생활과 그 형식을 제안코자 하는 것”이라는 김교수의 민가연구 입지점과 지향점을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 준다. 이와 함께 순수 토박이말의 흔적이 풍부하게 남아있는 민가의 용어들을 가려뽑아 해설하고 있는 점도 특징으로 꼽을 만하다.

제2부 ‘민가의 간접이’ 편은 분량으로 보아 이 책의 가장 주된 부분으로 김교수의 방대한 실증적 연구와 그에 기초한 민가의 분류체계가 돋보인다. 여기서 김교수는 우리나라 전통민가의 평면구성을 크게 네가지로 유형화하고 있는데 첫째, 한 용마루 아래 방들이 한줄로 배치돼 있는 ‘외통집’, 둘째 한 용마루 아래 방들이 두줄로 배치되며 기둥이 복판에 배열되는 ‘양통집’, 셋째 부엌을 앞뒤로 나누어 정지방을 두거나 건넌방을 앞뒤로 나누는 집으로서 한 용마루 아래 방이 두줄이거나 한줄로 배치되는 ‘겹집’, 넷째 용마루가 기역자로 꺾인 ‘곱은자집’이 그것들.

집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담은 생활의 공간이라는 점에서 제3부 ‘민가의 공간이용’ 편은 일반독자들도서도 흥미를 끈다. 주생활과 식생활,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의

네 부분으로 나뉜 전통민가의 공간이용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가를 소상하게 밝히고 있는 이 부분에서는 가령, 흔히 그냥 지나치기 십상인 뒷간의 이용실태에까지 그 연구의 눈길이 닿고 있다. 내부공간중 물건을 넣어두거나 저장하는 수장공간의 경우를 보더라도 마룻방 고방 도장 헛간 뒤주 토광 굴뚝 등으로 나뉘는 각각의 공간이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이를 통해 김교수는 민가에서 민중생활사의 구체적 면모들을 복원해내고 있는데, 예컨대 고살과 사립문, 마당과 뒤안, 텃밭 등 오늘날의 도시인들에게 아련한 향수로만 남아있는 것들로 구성되는 전통민가의 외부공간에서 우리들만의 독특한 생활감각과 지혜를 확인한다.

“외부공간이란 서양식 개념에 의하면 집 안팎의 모든 공간을 의미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이것 또한 두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외부에 노출되는 공동의 개방된 陽的 공간이고 다른 하나는 외부에 폐쇄된 극히 개인적인 陰的 공간으로 거의 내부공간과 같이 쓰이는 곳입니다. 예를 들면, 동네마당 정자마당 우물마당 고살 평상 등의 공적인 공간이 있는가 하면, 바깥마당 사랑마당 안마당 등의 사적 공간도 있습니다. 반면 같은 외부공간이라도 마당은 양적 공간만을 지칭해서 음적 공간에는 마당이란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뒤뜰 뒤안 뜨럭 봉당

등이 바로 그것이지요.”

제4부 '민가의 구조 기술' 편은 선인들이 어떻게 집을 지었는가를 밝히고 있는 부분으로 전통민가의 축조기법과 뼈대를 구성하는 방식을 보여주는데, 현전하는 민가들의 실증적 연구와 함께 특히 원시가옥의 짜임새를 실물크기로 복원하여 사진과 함께 보여주는 작업이 눈길을 끈다. '마을의 환경계획'에 관해 기술하고 있는 제5부에서는 마을의 터전과 집터 잡기를 비롯해 비바람 일조 채광 조명 실내기온 환기 등과 관련된 살림집의 환경계획을 다루고 있고, 제6부 '민가의 설비와 시설물' 편에서는 헛간과 광, 외양간이나 돼지우리 같은 경영시설, 부뚜막이나 상하수도 등의 밥짓기 및 설거지 설비, 각종 세간살이, 窓戶와 문, 정원이나 화단, 장독대와 우물 등이 민가의 공간 속에 어떻게 자리잡고 어떤 기능을 수행하며 어떤 변천과정을 겪는가를 밝혀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7부 '건축의례와 풍속' 편에서는 집터잡기나 상량식 등과 관련된 건축의례를 비롯해 집들이나 성주풀이, 입춘첩 등 전통민가의 세시풍속을 폭넓게 소개했다.

전통민가의 이야기 듣기와 들려주기

이처럼 방대하면서도 치밀한 연구성과를 담은 「한국의 민가」를 통해 김교수가 궁극적으로 시도하고자 한 바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전통민가에 간직된 이야기를 듣고 들려주는 일.” “대체로 민가가 물리적으로 걸면 3백년 정도까지 견딜 수 있다고 가정할 때 삶의 모습도 대략 그 정도까지는 추정해볼 수 있으며, 이보다 공간을 확대하여 마을의 공간구조를 분석해본다면 여기에 담겨졌던 마을의 사회생활도 추측해 볼 수가 있다”고 말하는 그에게 전통민가의 연구란 곧 “민가에 나타나는 과거의 민중적 삶의 궤적에 의거해 앞으로의 주생활 방식을 제안하고 실현, 수정하면서 바람직한 민중건축의 미학을 수립하는 일”과 통한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장 대표적인 주거형태로 대두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그의 진단은 그래서 자못 흥미롭다.

“얼핏 보기에 아파트는 전적으로 서구적인 주거형태 같지만 ‘우리나라의’ 아파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평면구조로 볼 때 알게 모르게 전통민가의 공간배치를 답습하고 있는 점이 다분합니다. 안방이나 부엌을 현관으로부터 제일 먼 곳에 배치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마당이



나 뒷마루 역할을 하는 배란다, 장독대가 놓이거나 허드렛일을 하던 뒤뜰과 유사한 기능을 가지는 다용도실 등이 다 민가에 나타나는 전통적 주생활의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들죠. 전통적인 주생활 감각과는 무관하게 ‘완벽하게 서구적인’ 아파트는 우리나라에서 제값에 팔리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다들 모르지만 입주자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생활에 관한한 우리는 그 큰 틀 안에서는 전통민가의 방식을 따르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 그가, 전통민가 자체가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못내 서글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화란 적응됨으로써 깊이를 갖는 것인데 과거를 무시하고 역사를 말살하는 것 같아 몹시 아쉽다”는 것이 그의 말이다. 그러나 김교수 개인의 가족사로 보자면 선친 말고도 위로 증조할아버지까지 건축일에 종사했던 데다가 밑으로는 두 아들 또한 건축을 해 보겠다고 나서고 있어, 집안에서만큼은 그 문화사적 의미의 5대에 걸친 적층을 기대해볼 직하다. 초가집에 관한 그의 글의 다음과 같은 한 구절은 그래서, 김교수 이후에도 여전히 아름다운 울림으로 우리 곁에 살아있을 성싶다.

“오동포동하고 두툼한 초가, 특히 초겨울에 막 입힌 섯노란 초가지붕의 따뜻한 느낌은 마을을 둘러싸안은 좌청룡 우백호의 영역감과

함께, 병아리를 품은 어미닭의 포근한 자태 그대로이다. 거기다가 살아 숨쉬는 재료로서, 여름에는 띄약별 아래 바짝 마른 이엉이 무더운 습기를 제거해 시원함을 더해주고, 겨울에는 반대로 습기를 내뿜어서 뜨겁게 달아오른 구들에서도 편도선이 붓지 않는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었다. 더구나 초가는 어린시절 벗이었던 참새가 집을 짓고, 여름에는 박이 열리고 가을에는 빨간 고추가 말려지고, 겨울에는 흰눈을 유난히도 오래 이고 있었다. 바로 자연의 일부로 살아가는 조형물의 하나로 이용되었다. 초가는 우리 마음의 고향으로 자연스럽게 우리의 심성에 아련한 향수를 남긴다.”

본격적인 개인저술로는 발간 당시(1987년) 민족적·민중적 관점의 이론서로 젊은 건축인들 사이에 큰 화제가 됐던 「민중건축론」(한길사)에 이어 두번째가 되는 「한국의 민가」 후속편으로 김교수가 요즘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가칭 ‘한국전통건축미학탐구’. 그에 의하면 성리학에서 말하는 주기론자의 집과 주리론자의 집이 서로 그 양상을 달리 하며, 사찰의 경우 또한 교파에 따라 건축양식의 차이를 보인다고

하는데, 이처럼 집을 통해 드러나는 집주인의 철학을 ‘집터기행’의 형식 속에서 규명해볼 계획이다. 이와함께 「한국의 민가」 축약판이나 보급판 출간에도 관심이 없진 않지만 “기꺼이 출판을 맡아준 출판사측에 미안해서라도” 그 일은, 언젠가 될지 모르나 이번의 「한국의 민가」가 완전히 소화된 다음의 훗날로 미뤄두고 있다고.

—강철주 기자

직 원 모 집

한국출판산업의 미래를 짊어질 일산출판문화산업단지
건설사업에 참여할 인재를 초빙합니다.

- 1) 찾는 사람은 기획실 업무를 담당할 남·여직원 약간명, 총무분야를 담당할 남·여직원 약간명이며,
- 2) 자격은 나이 제한 없이 대학졸업에 상당한 교육을 받고, 기획·조사·홍보·총무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거나 이 분야를 희망하는 분이면 됩니다.
 - 필요한 서류는 이력서, 원고지 5매 내외의 자기소개서, 최종학교졸업증명서, 주민등록등본과 기타 경력을 증명(경력자에 한함)할 수 있는 서류이고,
 - 1992년 6월20일까지 도착해야 합니다.
 - 전형은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로 진행하며, 서류심사에 합격한 사람에게 면접일자를 통보해 드립니다.



일산출판문화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135-12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06번지 강남출판문화센터 304호
전화 : 511-9566 팩스 : 511-9569